제 194 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특별강연

주제: 일본정치의 우경화
강연자: 나카노 코이치 (中野晃一) (일본 상지대학 교수)

일본 동경대학 및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철학과 정치학 학사를 걸쳐 미국 프린스턴대학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한 후, 현재 일본 상지대학(上智大学)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나카노 코이치 교수의 "일본의 우경화"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3 월 22 일 국제대학원에서 열렸다.

나카노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우경화는 10 년이상 전인 고이즈미 정권부터 서서히 진행되어왔다. 이렇게 조금씩 진행되던 일본의 우경화는 최근 아베정권에 들어서 가속화 되고 있는데, 이는 일본 국내정치가 자유화해가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됐다는 점에서 얄궂은 면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일본의 정치자유화는 소련과 중국의 모택동 등의 국제적인 움직임에 반응하여 진행된 측면이 있는데, 동시기에 일본에서는 아시아의 이웃국가들과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갈 쌓아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도 활발해졌다. 중국의 천안문사건을 살펴보면, 일본은 초기 서양의 중국의 경제압박 방안 등에 동조하였지만 후에는 경제적으로 중국을 고립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피면서 국제협조주의의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다.

1990 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당시 일본정치의 변화는 수면하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민당을 예상할 수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예를 들어, 일본 전 총리들의 예를 살펴보면, 모리총리는 공식적인 장소에서 우익적인 발언을 하는 등의 난폭한 면도 있었지만 실제 정책을 보면 우익적인 면은 그닥 찾아볼 수 없었고, 나카소네 수상도 첫 야스쿠니신사 참배 후 비난여론이 일자 그만 두는 등, 그들 나름의 타협점을 찾는 등의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하시모토가 총리로 취임하게 되면서 일본의 재군비노선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는데, 이는 냉전 종식 후 주일미군의 부재시 북한 등의 외국 세력에 의하여 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의 대비책의 일환으로 생각되었다.

일본의 우익활동을 조금 더 살펴보면, 아베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그 성격이 조금씩 변하게 되었는데, 이는 아베를 포함한 일본의 정치인들이 세대교체를 이뤘기 때문이였다. 이는 종전의 전전(戦前)에 출생한 정치인들 중심에서 전쟁을 겪지 않은 전후(戦後)세대들이 주류 정치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소위말하는 일본정치인들의 망언도 이시기에 시작되었고, 동시에 역사수정주의도 수면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역사수정주의적 성격을 띈 역사책들의 집필에서는 전문적인 역사가들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어 주류의견으로 편승된 것에 지나지 않은 내용들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제대로된 대책을 가지고 있진 못했던 자유주의 진영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90 년대 중반, 고이즈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본의 우익성향은 더욱 강해지게 되었는데, "미국과의 외교를 돈독히 하면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자연히 따라온다." 라는 의미의 고이즈미총리의 발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시 일본은 아시아국가들과의 관계 보다는 친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고이즈미의 행동을 보면, 총리로 취임하기 전에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를 한적도 없고 그다지 우익적인 성향도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고이즈미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우익적 발언/행동을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러한 일본국내의 정치 상황에서 2007 년에서 2009 까지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였다. 이 사건은 일본정치에 있어서 전후 첫번째 정권교체라는 중대한 의미를 가졌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도 일본국민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보다는 자민당에 대한 실망감이 나은 결과였다. 이렇게 국민의 지지기반도 결여되 있고, 관료들에 대한 영향력도 약했던 민주당은 결국 2012 년 12 월 유권자들에 의해 버림받게 되었다. 당시 민주당을 구성했던 정치인들은 역사인식, 정치, 정책 그리고 경제 등 여러 관념들을 가진 인물들의 집합체였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로 단결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 결과, 자민당의 정치적 반격이 있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민주당의 선거패배와 함께 아베정권도 새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나카노 교수에 따르면 자민당의 정권탈환이 자민당 자체의 지지율 상승을 의미한 것은 아니였다. 사실 자민당에 대한 과거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꾸준히 전체 유권자의 6 분의 1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해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 일본의 상황을 생각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아베정권은 아베에 대한 지지가 아닌 민주당의 몰락에 따른 결과였다. 하지만 아베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본의 우경화 현상도 눈에 띄게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우익단체들의 이전과는 다른 활동양상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전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선봉에 선 대표자가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하거나 자리에서 물러서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거리행진 등 단체적으로 조직화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

강연의 말미에는 아베의 현재 지지층에 대한 고찰이 있었다. 현 정권의 지지층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번째가 친미적인 생각을 가진 지지층이고 두번째가 부흥적 (復興的) 내셔널리즘을 가진 지지층이다. 특히 부흥적 내셔널리즘은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일장기를 중심으로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 이용하고 있는 면이 있다. 하지만 최근의 TPP 타결, 오키나와 미군기지 찬성, 한국과의 위안부협상 등 아베정권이 보여 준 행동은 정권 내에서의 불만을 낳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베가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의견을 펼치며 나카노 교수는 강연을 마무리 지었다.

#질의응답

-질문: 이번 참의원 선거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 시민 주도의 참의원선거가 되어서 개헌세력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민운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말하자면, 이번 선거에 있어서 현재 50 퍼센트 정도인 투표율을 60 퍼센트를 넘어 거의 70 퍼센트에 가까울 정도로 올려서 자민당의 견고한 지지층인 전체 유권자의 육분의 일을 넘어서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투표율이 낮을수록 자민당에게 유리해지기 때문에 저투표율은 자민당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지금 현 상황을 설명하자면, 투표율을 그렇게 까지 올리는 것은 사실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일단 선거자체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블선거에 관해서는, 민주당의 현 상황을 볼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더블선거를 진행시키며 선거자체의 투표율을 높히는 것이 중요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이러한 선거에 대한 분위기가 헌법수정선거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자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도 투표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민주당에게 있어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릅니다.

질문: 현 미일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국의 영향력이 일본내의 우경화현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 사실 미국이 일본의 관료들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을 보면, 미국에 의해 일본은 주권이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외무성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아시아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톱에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외무성개혁 후, 현재 외무성내에서 실질적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미국에 가까운 인물들 입니다. 이런점들을 고려할 때, 최근의 이러한 현상은 단지 미국의 탓일 뿐만인 아닌, 일본내부적인 이유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